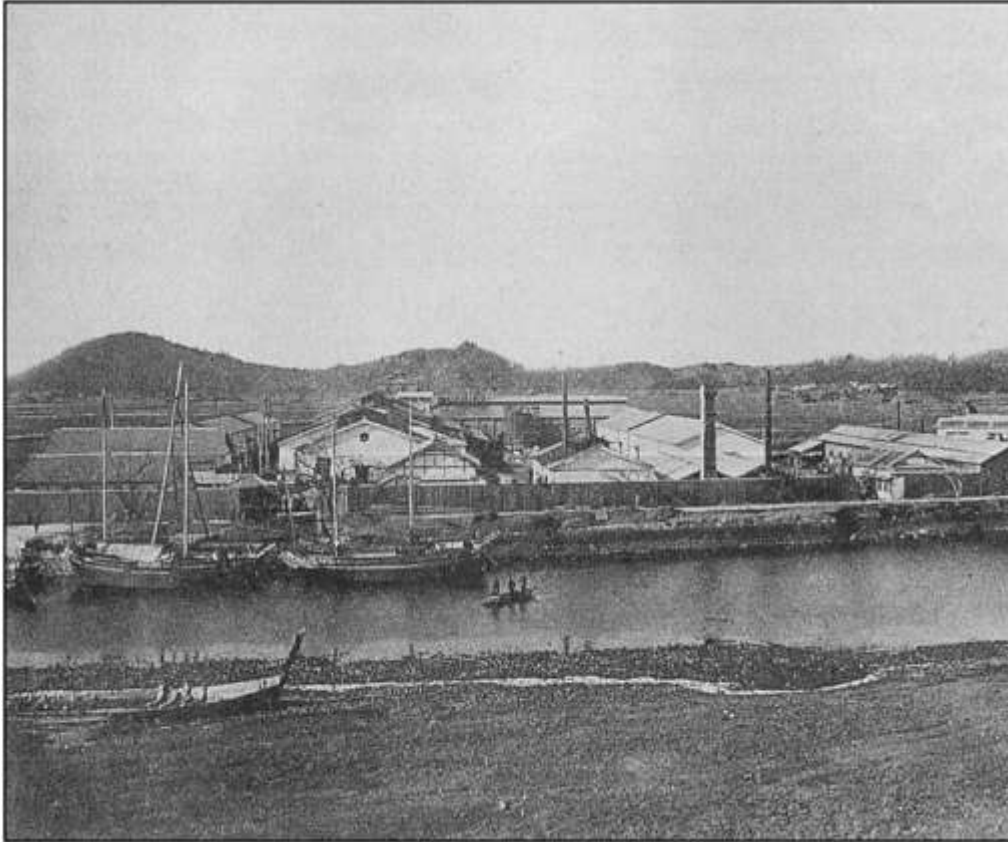


4. 짓소는 어떤 회사였는가



메이지 시대의 구 짓소공장

(주)짓소는 메이지(明治)시대 말기에 수력발전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 전기를 이용하여 카바이트공장을 미나마타에 만들어서 화학비료생산을 시작해 일본에서 중요한 화학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주)짓소의 발전은 미나마타의 발전이었습니다.미나마타는 인구가 많아지고,구마모토현에서 유수의 공업도시로 발전했으며 또 전 공장장이 미나마타시 시장으로 당선되는 등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또한 주민들의 의존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주)짓소는 화학비료외에 초산,염화비닐이나 그 성형에 필요한 가소제의 생산에 힘을 들이기 시작했고,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을 받아들여준 기업의 하나였습니다.

다이쇼(大正)시대에 접어들면서 짓소공장의 배수로 인한 바다오염이 자주 문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주)짓소는 1932년에서 1968년까지 초산이나 가소제 등의 원료가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때 촉매제로서 무기수은을 사용하고,그 과정에 생성된 메틸수은을 1966년까지 대부분 정제처리도 하지 않은 채 바다에 배출하였습니다.

(주)짓소는 공장배수가 미나마타병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생산중지를 하지 않았습니다.최초의 미나마타병 재판의 판결에서 이런 기업운리의 결핍때문에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